

‘우한폐렴’ 베이징·선전까지 확산 초비상

환자 200명 넘어서

우한서 이틀간 136명 확진

춘제 이동 대규모 확산 우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에서도 발생했다. 또한, 저장성에도 유사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속출해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된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이틀 만에 무려 136명이 새로 확진을 받았으며 3번째 사망자도 나왔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를 앞두고 수억명의 대이동이 시작돼 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내 우한 이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우한을 넘어 중국 곳곳으로 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경청년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 다싱구 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을 여행하고 돌아온 2명이 ‘우한 폐렴’에 걸렸다고 20일 새벽 확진했다. 이들 환자는 현재 격리 치료 중이며 호흡기 증상이 좋아지면서 평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생건강위 측은 이들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의학적 관찰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광둥성 선전에서 우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66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다. 아울러 다른 8명도 이 병에 걸렸을 우려가 있어 격리 치료를 받으며 병세를 파악 중이다.

이에 앞서 홍콩 언론은 선전과 상하이에서 각각 2명과 1명의 의심 환자가 나왔다

고 보도한 적이 있다. 저장성에서도 온저우, 저우산, 타이저우, 항저우에서 우한에 다녀온 사람 5명이 발열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저장성 당국은 이들 환자를 격리해 치료 중이며 병세가 안정되고 있다면서 자세한 병명은 확진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우한에서는 지난 18일과 19일에 각각 59명과 77명이 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 받아 누적 환자가 198명으로 늘었다고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이날 발표했다. 지금까지 25명이 퇴원하고 3명이 숨졌으며 170명이 병원에서 격리 치료받고 있는데 중증은 35명이며 위중은 9명이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817명이며 이들 중 727명은 이상이 없어 의학관찰 대상에서 해제됐다. 밀접 접촉자의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한 폐렴 신규 환자는 지난 16일 4명, 17일 17명에 이어 급격히 늘고 있다. 당국은 지난 16일 새 검사 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환자가 폭증한 것은 검사 방법 변화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중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우한 외에 베이징, 선전까지 합치면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201명이다.

중국 보건 당국은 우한 전역에 대한 방역 작업 강화와 더불어 주요 도시에도 방역에 나서고 있다. 또한, 우한과 주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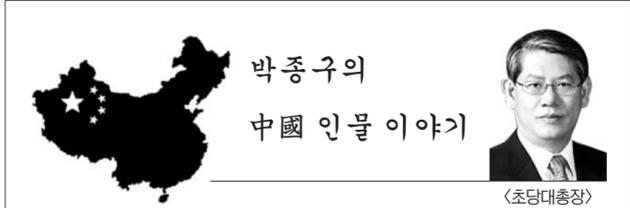
역의 공항과 기차역,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서는 우한을 떠나는 여행객을 상대로 적외선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보건 전문가들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면서 집 또는 공공장소에서 실내 환기에 힘쓰고 손을 자주 씻으며 밀집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춘제를 전후해 중국인의 해외 관광이 급증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될까 봐 공항에서 발열 검사를 시행하는 등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이미 태국과 일본에서는 우한을 방문한 중국인 2명과 1명이 각각 신종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됐다. /연합뉴스



‘우한 폐렴’ 검역 기다리는 방콕 공항 태국을 찾은 여행자들이 19일 방콕의 항공 관문인 수완나품 국제공항의 입국장에서 줄을 지어 검역을 기다리고 있다. 태국은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가 중 하나이며 수완나품을 비롯한 여러 공항에서 우한 직항편이 운항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우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16〉 포증

포증(包拯, 999-1062)의 호는 청천(青天)으로 안휘성 여주 합비 사람이다. 북송의 대표적인 청백리다.

포원외의 3남으로 태어났다. 두 형이 20세 이상 연상이라 모친이 이를 부끄러워해 낙태하려 했지만 태몽을 꾸고 그만두었다. 얼굴이 검으며 어려서부터 효자로 유명했다. 인종 천성 5년(1027) 진사시합에 합격해 요동성 건창현 지현 등을 지냈으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사직했다. 부모의 3년 상을 마친 뒤 1037년 관직에 복귀해 천장현 지현, 지단주사를 거쳐 감찰어사로 발탁되었다. 이후 지간원으로 재직했다. 이때 장귀비의 인척 장요좌를 탄핵했다. 1057년 개봉부 지부부 부임해 대대적으로 탐관오리를 숙청했다.

그가 강소성 천장현령으로 재직할 때 일이다. 도둑이 소의 혀를 잘라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는 돌아가 그 소를 도살해 팔라고 했다. 얼마 후 사사라이 소를 도살했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어찌하여 남의 집 소의 혀를 잘랐다가, 이제 또 그 집에서 소를 잡았다고 고발하느냐?” 그 도둑이 놀라 죄를 자백하였다.

벼루의 명산지인 단주의 지주 때 일화다. 매년 중앙에 벼루를 공물로 바쳤는데 전임 지주는 많은 벼루를 보관해 두었다. 그는 벼루 생산업자에게 명해 공납의 수량만큼만 내도록 했다. 임기가 만료되어 전권할 때 단하의 벼루도 지니지 않은 채 떠났다.

언관(言官)으로 재직중에는 국가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개봉부 지부가 되어서는 철저히 중앙의

염라대왕 별칭...북송 대표 청백리

1061년 추밀원부사가 되었고 다음해 병사했다. 인종은 동해군개국후에 추봉하고 이부상서로 추증했다. 시호는 효숙(孝肅)이다.

청천이라는 호가 시사하듯이 그는 청백리의 상징이었다. 재물에 미혹되지 않고 권세를 탐하지 않은 채 사직과 백성을 위해 헌신한 공적자였다. 그가 활약한 인종 시대는 북송의 전성기였지만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서하, 요에 대한 대규모 세폐 지급으로 재정이 어려움에 빠졌다. 포증은 “백성을 보살피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신조로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관리의 가장 큰 책무로 인식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황제와 조정 중심의 술선수법을 강조했다. 또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다. 그가 사형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할 태도를 취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사형수에 관한 기록을 철저히 살펴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황제에게 직보해 자신이 직접 심문에 나섰다.

인종의 총애를 받는 장귀비의 집안 어른인 장요좌에 대한 처벌은 공평무사한 법집행의 단적인 예다. 장요좌는 3사의 오직을 차지해 뇌물을 수수하고 공금을 유용하였다. 포증의 탄핵으로 삼사에서 물러났지만 다른 직책을 계속 유지했다. 포증의 4년에 걸친 탄핵으로 결국 모든 직책을 내놓았다.

명령을 집행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를 ‘포대제(包待制)’ 혹은 ‘포가(包家)’라 부른다.

고향인 합비의 지주로 재직할 때는 외당숙이 죄를 범하자 용서없이 태형을 가했다. 개봉부 지부 시절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청각이 통하지 않는 염라대왕과 같은 포증 나리”라 불렀다. 모든 공직자와 백성들이 존경하며 복종하였고 원근 각지에서 친승이 자자했다. 상관이나 동료와 논의중에는 거침없이 상대방에게 면박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이치에 부합하면 기꺼이 수용했다.

포증은 천성이 엄해 일찍이 웃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웃음을 비유해 황하(黃河)가 깨끗해지는 것에 견주곤 하였다. 그의 글에 “깨끗한 마음은 다스림의 근본이고, 곧은 길은 이 몸이 나아갈 바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런 점에서 명말의 청백리 해서와 비교되곤 한다. 해서는 3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죽은 뒤 남긴 재산이 은자 100냥에 불과했다. “지부 3년이면 은 10만냥”이 당시의 관행이었다. 합비의 포공 사당에는 우물이 있다. 청렴의 상징으로 염천(廉泉)이라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탐관오리가 이 우물을 마시면 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청백리가 마시면 아무 탈이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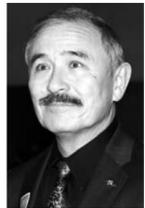
미 국무부 ‘해리스 주한대사 전적으로 신뢰’

거친 발언 반발에도 지지 표명

미국 국무부는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대사가 거친 발언으로 한국의 반발을 사고 있음에도 그를 지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리스 대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주권국이자 동맹국인 한국에 주권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해리스 대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리고 특히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주권에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드라 이브를 거는 개별관 광 등 남북협력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청와대까지 나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 한국인이 구매할 수도”

멕시코 언론 나범수 대표 지목

멕시코 정부가 매물로 내놓은 대통령 전용기를 한국 기업이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멕시코 언론들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멕시코 SDP뉴스 등은 나범수 세리토스홀딩스 및 크리엔자항공 대표가 전용기 구매 의향을 표시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 대표는 1년 전부터 구매 의사를 보였으며, 멕시코 내 대리인이 현재 멕시코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나 대표는 항공기 대금을 즉시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나 대표가 설립한 크리엔자항공은 항공기 임대업체다. 업체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

사는 IMM 인베스트먼트, 세리토스홀딩스, 이스트먼트 캐피탈의 전략적 제휴로 2016년 8월 설립됐다.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2016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2억1800만 달러에 사들였다. 그러나 2018년 12월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전용기 매각을 선언하고 단 한 차례도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잉사 격납고에서 매각을 기다렸던 전용기는 1년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곧 멕시코로 되돌아올 예정이다.

전용기의 판매 가격은 1억3000만 달러(약 1500억원)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p>문흥지점 266-4150</p> <p>양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 528-4150</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매곡지점 572-4150</p> <p>첨단지점 576-4150</p>
---	--	---